

인권 자료실		
구분	일부기밀	비밀
PR	A4	177

수신 : 각 언론사 기자

발신 :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담당 : 여준민(간사 521-5364 (층3쪽입니다. 앞으로도 장대협의 활동을 계속 보내드리오니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 도 자 료

1997년 10월 30일(목)

'장애인의 참정권을 확보하자'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이하 장대협·공동대표 김성재)는 이번 제 15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장대협은 대선과 관련하여 크게 ▲ 장애인 참정권 확보와 ▲ 올바른 장애인 정책 공약 유도 ▲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라는 세가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장애인 참정권과 관련하여 장대협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첫째 진행중인 대선후보TV초청 토론회 시 수화통역 미실시 문제, 둘째 1층이 아닌 지하 또는 2,3층의 투표소 설치 문제, 셋째 시각장애인의 투표절차 안내문 및 투표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홍보 계획 마련 ▲ 거소투표를 하는 중증장애인의 투표 참여 활성화 등이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요 사업이다. 장대협은 오는 15대 대선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은 실질적인 활동을 했었고 앞으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장애인 참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1. 경과 보고

9월 4일 - 5일 : 방송협회와 신문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대선 TV초청토론회가 방송 3사를 통해 방영되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수화통역이나 자막처리가 되고 있지 않아 방송 3사를 비롯해 방송위원회, 방송협회, 4대 일간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방송사에는 9월 29일까지 실시여부를 알려달라고 함)

→ 그러나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답변을 보내온 방송사는 한 곳도 없었으며 방송위원회는 각방송사는 권고를 했다. 그 이상 강제해 낼 방법은 없다라고만 함.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별 내용이 없는 회신을 보내음.

방송사의 답변

29일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느 곳에서도 연락이 없어 직접 전화를 걸어 각 방송

사의 담당자인 보도제작 2부 책임자와 통화를 함

KBS의 입장

토론회에서는 내용이 너무 많아 문자방송은 몰라도 방송화면에 자막처리하는 불가능하다고 함. 수화통역은 화면구성에 있어 보조수단이 필요한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함. 공문을 접수했으나 건의하겠다고 함. 담당자 선에서 노력하겠다고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함. 인터넷의 빠른 손위드나 PC통신을 이용하라고 함.

※ 9월은 MBC, 10월은 SBS, 11월은 KBS측에서 토론회가 있으나 방송 3사 모두가 어려울 것이라고 함. 후보등록이 끝나면 다자간 토론회나 법정선거운동의 하나로 TV토론회가 진행도리 것임. 현재 TV토론준비위원회가 시민단체를 비롯해, 기자협회, PD협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통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함. KBS는 이때 중계만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함.

MBC의 입장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음. 토론회 내용과 관련해서 공정성 시비 및 이익단체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 미처 생각치 못한 부분이라고 인정함. 현재는 실시에 어려움이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어 토론회 일정이 잡히게 되면 제안하고 실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함.

SBS의 입장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함. 10월 중에 토론회가 있지만 실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함. 전 화상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복잡하다고 함. 정당간의 합의도 필요하고 진행상 어려움이 있다고 함. 정당과 방송 3사간의 협약사항이라는 것이 있지만 수화통역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없는 실정임. 수화통역의 경우 미리 각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면에서의 어려움도 있다고 함.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함.

9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의 선거 참여 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요청'의 공문 발송

- 시각장애인의 점자투표절차안내문과 투표보조용구 사용 등에 관한 홍보계획 및 점자 홍보물에 대해
- 신체장애인을 위한 투표소의 1,2층 설치 상황 및 편의시설 설치 여부
- TV토론 시 수화통역 및 자막처리 실시 여부
- 중증장애인을 위한 거소투표 활성화 방안

-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해 마련된 예산의 규모

9월 24일

TV토론 시 수화통역 및 자막처리 실시를 위하여 각 정당에 협조를 요청(10월 초에 국민회의 선거방송대책팀으로부터 연락이 옴. 선거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합의하고 있는 '정치개혁특위'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려면 종교인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연대 청원과 더불어 사회적인 여론이 일어날 것 같다고 함. 해야 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지만 정당간 합의가 필요하며 방송사에서 먼저 제안을 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 함. 법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함. 현재까지 신한국당과 지민련,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음.)

10월 9일

정치개혁특위가 10월 18일까지 열리는 상황 속에서 논의와 시간적인 부족으로 정치개혁특위의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못했지만 국민회의 유선호의원실을 찾아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 중앙선관위 국정 감사때 책임추궁과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요구하겠다는 약속을 함. 국정 감사 때 제대로 듣지 못하는 상황이 와서 선관위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함. 자료가 오는 즉시 보내주기로 함.

10월 20일

국민회의 최희준의원(문체공보위 소속)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방송공사 사장과 공보처 장관에게 수화통역에 관한 질문을 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나왔는지 문의. 그날 그저 노력하겠다는 답변만을 듣는 정도였고 여길 구체적인 계획 여부는 서면으로 제출받기로 했다 함. 방송사를 움직이는 것은 오인환 공보처 장관밖에 없다면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함.

10월 23일

TV 토론회시 수화통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보처 오인환 장관에게 수화통역실시를 촉구하는 공문 발송